



캠퍼스 안심 소식지

성범죄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약류 이용 성범죄 편

마약류 이용 성범죄란?



특징

성범죄에 악용되는 마약류 등은 무색·무취로 음료에 타는 경우 식별하기 어렵고, 약물의 영향으로 무능력 또는 무의식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으며 단기 기억상실을 유발하여 피해 사실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움

주요 약물과 증상

- ▶ (GHB) 주변 사람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거나 질문에 대답하다가 잠들며, 깨어난 이후 전혀 기억하지 못함 / 자유의지를 상실한 채 타인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종속적인 모습이 나타남
※ 약물의 반감기*가 짧아 비교적 단시간 내에 몸에서 빠져나가므로 즉시 신고 후 해바라기센터에서 혈액·소변 채취 필요
*약물의 체내 농도 또는 양이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
- ▶ (케타민) 환각 증상을 유발하고 시각·청각적 인식을 왜곡하여 자신이 환경과 분리된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됨/ 심장박동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메스꺼움을 일으킴
- ▶ (졸피뎴·로히프놀 등 수면제류) 몸에 힘이 빠지며 심한 졸음이 오고 잠이 든 이후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며 가끔 정신이 희미하게 들지만 의지대로 행동할 수가 없음

마약류 이용 성범죄 사례



사례1 화식 도중 양주에 수면제(졸피뎴·미다졸람)를 몰래 넣은 후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 **사례2**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GHB(물봉)의 원료를 술에 몰래타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성폭행 **사례3** 클럽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간 사이에 필로폰을 술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후 차로 끌고 가 성폭행

예방 및 대처법



예방법

- ▶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음식물 등은 함부로 먹지 말기
- ▶ 마개가 열려있는 술이나 음료는 의심하기
- ▶ 모르는 사람과의 술자리에서 술잔을 둔채 자리를 비웠다면 남은 술 버리기

대처법

- ▶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모르고 마약류를 섭취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112 신고
- ▶ 피해가 의심된다면 마시던 음료·술잔 등 증거보존, 소변을 보거나 몸을 씻지 않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혈액·소변 등 채취

처벌

- ▶ 마약류 이용 성범죄는 약물 투여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 「형법」상 「강간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적용 → 강간(3년 이상 징역),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사용(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마약류 투여로 건강상태가 나빠지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길 경우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죄」 적용 → 강간 등 상해·치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도움 요청하기

마약·성폭력 피해신고 112
여성긴급전화 1366
성범죄 상담 챗봇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
www.safe182.go.kr



위 포스터 작품은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한 '마약류 이용 성범죄 근절 홍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임